

『藏珍要編』의 選穴特性에 관한 연구

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²

金度勳^{1, *} · 白裕相²

A Research on the character of selecting acupoints in *Jangjinyopyeon*(藏珍要編)

Kim Do-Hoon^{1 *} · Baik You-sang²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²Dep.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 : *Jangjinyopyeon*(藏珍要編, JJYP) was published in 1894.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know the character of JJYP, and to know JJYP inherited the tradition of Chosun(朝鮮) acupuncture which put emphasis on diagnosis and cure of Jangbu(臟腑) through meridian system.

Method : First, identify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the Mimeograph version of Original JJYP. After then, count and classify the provision by selected acupoints. Analyzed the result in succession.

Conclusion : From the research of the mimeograph version of Original JJYP, come to following conclusion.

1. The pen name of author is Songgye(松溪), which means the region of his origin.
2. JJYP used 49 acupoints in total. It covers all regular meridian system except the regular Meridian of Hand Soem[手少陰心經] for heart organ would never be injured in Neijing(內經)
3. JJYP suggested Eight Confluent points[八脈交會穴] as major acupoints in the end of book. But actually they were selected as the acupoints of belonging Jangbu(臟腑) and various symptoms.
4. Oegwan(外關) and Sameumgyo(三陰交) were maximum frequency in selecting of all acupoints, which means JJYP value controlling and covering whole body.
5. Generally, Reinforcing and reducing manipulations concentrated one way, but Hugye(後谿) used each manipulation equally, which means JJYP regards tonification or purgation highly in Hugye(後谿).
6. Most acupoints of high frequency were Nak-point[絡穴], Won-point[原穴], Hap-point[合穴], which supposed to be directly connected to Jangbu(臟腑). So, we can see JJYP continue the tradition of Chosun acupuncture which put emphasis on Jang image[藏象] of meridian.

Key Words : *Jangjinyopyeon*(藏珍要編), Songgye(松溪), Oegwan(外關), Sameumgyo(三陰交), Chosun(朝鮮), Jangsanggyeongmaek(藏象經脈)

I. 序 論

『藏珍要編』은 구한말 1894년에 만들어진 책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한국 한의학의 특성을 담고 있는鍼灸學 서적이다. 조선시대 『東醫寶鑑』과 『鍼灸經驗方』, 그리고 『舍岩鍼法』을 거치며 經脈의 치료에서臟腑의 辨證과 診斷, 治療 쪽으로 발달해온 朝鮮의鍼灸學¹⁾은 19世紀末 五臟辨證과 治療에 중점을 둔 침구서로서 『藏珍要編』이라는 침구서의 간행을 맞게 된다. 조선 후기에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많이 쇠퇴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實用主義의 경향이 의학계에서도 있었으며, 그에 따라 『東醫寶鑑』과 같은 官 주도의 醫學보다는 민간에서 개인 의가 중심으로 활발하게 임상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책으로 간행하여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李濟馬의 四象醫學도 이러한 시기에 태동하였고, 醫學의 간이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方藥合編』도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 鍼灸를 통해서 臟腑辨證을 실현하고 藏象論에 따른 임상을 실천하려는 『藏珍要編』이 편찬된 것이다.

특히 『藏珍要編』은 현재 韓國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日本으로 전해져 1940년대에 柳谷素靈과 그를 중심으로 한 연구회에서 筆寫, 刊行되고 학습되어 임상에 활용되어 오다가 1988년에 日本語로 번역되어 책으로 출간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藏珍要編』은 朝鮮 후기에 韓國과 日本의 鍼灸學 交流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藏珍要編』의 日本 전래와 출간은 韓國과 日本의 醫學交流史에 있어서 중요한 史實이라 할 수 있다.

『藏珍要編』에 대한 기존 연구는 본 書籍이 학계에 소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로, 오준호의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경락경혈학회지. 2010.)가 유일한데 『藏珍要編』의 저자와 流傳過程, 책의 구성과 내용, 의학관, 鍼刺手技法的 특징, 선현원칙 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

한말의 조선 침구학의 특징을 담고 있는 『藏珍要編』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에서 더 나아가 실제 『藏珍要編』의 각론에서 臟腑의 진단과 치료에 선택된 穴位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選穴의 특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가 향후 『鍼灸經驗方』과 『東醫寶鑑』 및 기타 韓國鍼灸書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역사속의 韓國鍼灸學을 재구성해 내는 데에 조금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本 論

1. 本 研究의 대상 자료

아쉽게도 현재 『藏珍要編』의 원본이나 원본의 필사본은 韓國에 남아있지 않고, 원본의 필사본이 日本으로 건너가 전해지고 있다. 구한말의 시대상황 속에서 당시에 韓日間의 醫學交流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日帝의 지배와 서양문화의 유입 속에서 韓醫學이 수난기를 겪게 된 반면, 日本에서는 鍼灸師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탓에 저자가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原本의 刊行本은 겉표지에는 제목이 『朝鮮秘傳 藏珍要編』으로, 표제지에는 『朝鮮家傳 藏珍要編』으로 되어 있으며, 柳谷素靈이 撰하고 皇漢醫書寫傳會에서 발행한 筆寫本의 謄寫本이다(그림 1, 2). 표지는 원본의 筆寫刊行本을 보관하면서 안전한 보관을 목적으로 다시 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1940년 간행 당시의 정확한 書名은 『朝鮮家傳 藏珍要編』으로 보아야 한다. 이 『朝鮮家傳 藏珍要編』은, 1988년 원문의 번역과 해설이 실려 간행된 『朝鮮의鍼法 藏珍要編』(松又溪 原著, 柳谷素靈 推獎, 池田政一 解說. 東京. 醫道の日本社. 1988)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던 것인데, 柳谷素靈이 소장한 원본의 사본을 謄寫해서 소장한 것으로 보인다. 책의 版權紙에 謄寫하여 발행한 년도는 昭和 15년(1940년) 5월로 기재되어 있다(그림 3). 따라서 원본의 필사본이 남아 있지 않은 지금 1940년 간행본이, 1957년 柳谷素靈의 初譯을 바탕으로 번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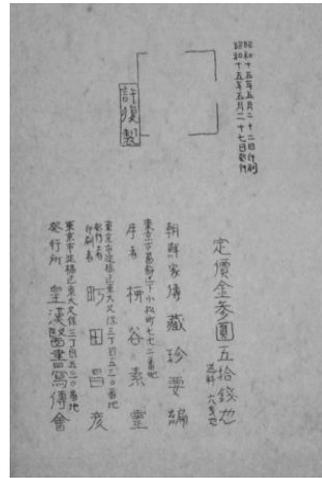
* 교신저자 : 金度勳, 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史敎室.
E-mail : chulian@gachon.ac.kr Tel : 031)750-5422
접수일(2013년 10월15일), 수정일(2013년 11월12일),
게재확정일(2013년 11월15일).

1) 吳準浩. 五臟辨證을 활용한 朝鮮 鍼法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2010. p.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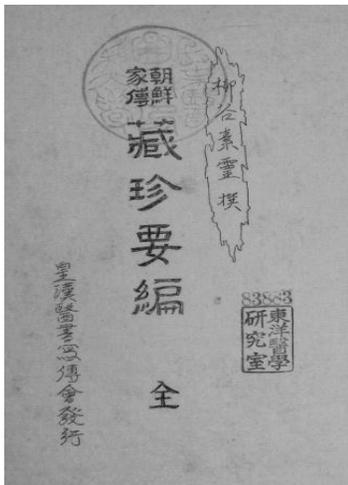
고 해설하여 池田政一이 1988년에 간행한 『朝鮮의 鍼法 藏珍要編』에 비해 원본에 더 가까운 필사본으로 판단된다. 현재 『朝鮮家傳 藏珍要編』은 日本의 千葉大學 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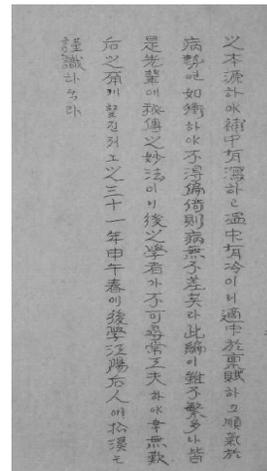
<그림 1> 刊行本 『藏珍要編』의 표지
(千葉大學 圖書館 소장)



<그림 3> 간행본 『藏珍要編』의 판권지



<그림 2> 刊行本 『藏珍要編』의 표제지
(千葉大學 圖書館 소장)



<그림 4> (高宗)31年(1894年),
號 松溪 (序文)

2. 저자에 대한 고증 문제

현재 학계에는 日本의 번역, 간행본 『朝鮮의 鍼法 藏珍要編』이 주로 소개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1940년에 간행된 『朝鮮家傳 藏珍要編』을 살펴보면 日本의 번역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자에 대한 고증 문제가 있다.

『朝鮮의 鍼法 藏珍要編』에서는 저자를 松又溪로

기록하고 있고 서문에 “江陽后人”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저자가 江陽 지방의 사람으로 현재 陝川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1940년의 筆寫刊行本の 서문에는 松又溪가 松溪로 기재되어 있다(그림 4). 현재 우리나라의 松氏는 1946년에 始祖인 松吉晩이 일본에서 건너와 1959년에 창시된 和順松氏가 유일하므로 구한말의 松溪라는 인물이 실제 본명일 가능성이 적다²⁾. 그렇다면 松溪는 성명이 아니라 저자의 號가 기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데³⁾, 역사상 松溪의 號를 사용했던 인물도 여러 명 있고, 陝川 지역을 중심으로 松溪라는 지명도 있어서⁴⁾, 『藏珍要編』의 서문에 나오는 ‘江陽의 지명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증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과 특정 지역이라고 한정짓기에는 별다른 사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는 단지 개인의 號 아니면 地名을 따른 號로 추정할 뿐이다.

3. 『藏珍要編』의 체제

『藏珍要編』의 체제는 목차가 먼저 제시되었고, 松溪의 序文, 臟腑總論, 凡例, 각론으로 145조에 이르는 병증과 치료혈 처방, 經穴이라는 제목으로 주요혈인 八脈交會穴의 제시, 18조에 이르는 別法의 병증과 치료혈 처방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臟腑總論은 『醫學入門』의 臟腑總論을 인용하여 臟腑의 진단과 치료를 강조하였으며, 145조의 병증은

2) http://www.rootsinfo.co.kr/info/roots/view_roots.php?H=%E1%E6&B=%C8%AD%BC%F8&HB=&P=

3) 다만,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도 松溪의 號를 쓰는 사람 가운데 시대와 행적이 『藏珍要編』의 저자로 판단할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국조인물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서 松溪의 號를 쓰는 사람 가운데, 서문을 근거로 高宗 31년 연간에 활약한 인물은 1명만이 검색(田珪鎮, 1870-1928)되지만, 『藏珍要編』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로 보인다.

<http://people.aks.ac.kr/front/search/totalSearch.aks?kristalCategory=1&kristalSearchType=1&kristalSearchWord=%E6%9D%BE%E6%BA%AA&kristalSearchArea=M&isEQ=true&isEQ=true&kristalSearchArea=M>

4) 陝川郡 治爐面 九江里的 松溪마을과 이보다 남쪽에 있는 山淸郡 生比良面 可溪里的 松溪마을이 있다. 두 곳 모두 松溪는 이 지명의 근거로 洛東江과 합하는 南江의 지류로 판단된다.

일반병증 123조와 婦人科 병증 9조 小兒科 병증 13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어져 있음), 일반병증의 목차는 대체로 『濟衆新編』의 목차와 유사⁵⁾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는 日本의 翻譯本 『藏珍要編』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病證이 생략된 부분이 있고, 18조의 別法의 내용이 빠져 원본의 내용과는 다소 출입이 있다.

4. 『藏珍要編』에 제시된 치료 혈위

『藏珍要編』에 기재된 혈위는 대략 15혈 내외이며 八脈交會穴을 중심으로 선혈되고 배혈된다고 알려졌으나⁶⁾, 원본의 필사본을 근거로 다시 자세히 조사한 결과 각론의 145조문 중에 40개의 혈, 別法 18조문에 9개의 혈이 사용되어 총 49개의 혈이 제시되어 있다. 114조 紅絲疔 과 120조 諸傷 등의 2조는 따로 혈위가 제시되지 않고 해당 부위를 자침할 것을 제시하였다.

經絡별로는 또한 外關, 列缺, 三陰交, 公孫, 足三里, 後谿, 臨泣, 內關 등의 八脈交會穴 뿐만 아니라 14經脈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임상에 활용했음을 볼 수 있다. 단, 특징적으로 手少陰心經에 속하는 혈이 나타나지 않아 心이 君主之官의 역할을 함에 따라 ‘心獨無臚’의 관점으로 치료의 혈위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藏珍要編』이 「臟腑總論」을 책의 서두에 놓고 臟腑의 진단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혈위를 경맥별로 분류해보면 『藏珍要編』의 선혈과 치료는 개별 병증 위주라기보다는 환자가 가진 본래의 특성을 파악해서 臟腑를 기준으로 辨證을 하여 치료를 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하 본문에서 필사본에서 선정한 치료의 經穴을 정리하여 『藏珍要編』의 치료에서 다빈도로 등장한 혈위를 중심으로 해당 혈위가 어떤 병증에 주로 사용되었고, 어떤 臟腑의 치료에 주로 쓰였으며 어떠한 혈위끼리 주로 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5)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0. 27(1). p.162.

6)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0. 27(1). pp.165-166.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外關 107회, 三陰交 90회, 列缺 50회, 公孫 53회, 後谿 34회, 照海 28회, 臨泣 28회, 合谷 27회, 足三里 24회, 太衝 23회, 申脈 20회로서 이상 11개 혈위가 다용되었고, 기타 曲池, 委中이 8회, 別穴이 7회, 肩髃, 肩井이 5회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3회 이하로 미미하다.

5. 각 혈위에 대한 분석

1) 外關

총 107회, 그중 別法에서 10회 선혈하였다. 外關은 手少陽三焦經의 絡穴로 陽維脈과 통하는 八脈交會穴이다. 총 163條文 가운데 107회 선혈되었으며(65.6%) 이는 內傷, 外感 등 各論의 거의 모든 병증에 가리지 않고 통용된 혈위였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로 各論 앞부분에 臟腑中風, 暴瘡, 口眼喎斜, 麻木, 歷節風, 破傷風 등 일부 風證에는 선혈되지 않았는데, 이는 三焦經의 조절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판단한 것 같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外關과 三陰交到 대해서는 거의 전 질환에 기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혔다⁷⁾. 실제 107회의 外關 사용 중에서 78회의 三陰交 혈이 배합되어 72.9%의 빈도로 배합되었고 外關을 사용하지 않은 56개의 조문 중에서는 12개가 배합되어 21.4%에 불과했다.

그런데, 八脈交會穴은 전통적으로, 公孫穴(父-衝脈)과 內關穴(母-陰維脈)을 배합하여 心, 胸, 胃部를 치료하고, 臨泣穴(男-帶脈)에 外關穴(女-陽維脈)을 배합하여 目銳眦, 耳後, 頰, 頸, 肩, 缺盆, 胸膈을 치료하고, 後溪穴(夫-督脈)에 申脈穴(妻-陽維脈)을 배합하여 目內眦,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을 치료하고, 列缺穴(主-任脈)에 照海穴(客-陰蹻脈)을 배합하여 肺, 喉嚨, 胸膈을 치료하는 등 정해진 배합으로 사용해 왔고⁸⁾, 『藏珍要編』에서도 주요 經穴의 주치증을 실어놓으면서 父母, 夫妻, 男女, 主客으로 짝지어 배합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혔다⁹⁾. 이 원칙에 따

르면 外關은 원래 臨泣과 배합하여 치료하지만, 실제로는 107회 선혈 가운데 21회만 臨泣과 배합되어 있어서(19.6%) 오히려 三陰交와 많이 배합되고 있는 것이다. 즉, 八脈交會穴의 배혈 원칙에서 벗어나 外關穴을 선혈하고 이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五臟辨證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저자의 정신을 헤아려 본다면, 外關穴을 통해서 三焦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決瀆之官, 水道出焉”¹⁰⁾의 臟腑로서 三陰交와 결합하여 진신에 걸쳐 水液代謝를 주관하여 광범위한 인체 대사의 균형을 맞추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2) 三陰交

各論에서 총 90회, 그중 別法에 10회를 선혈하였다. 선혈 비율은 55.0%로 비중이 높지만 반드시 外關과 배합되어 쓰이지는 않았으며, 五官科, 脚氣, 筋骨格系 질환, 外科 질환에는 많이 선혈되지는 않았다. 內關이 三陰交와 배합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각각 22회, 5회로서 배합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合谷은 7:20으로 배합 비율이 낮았다.

三陰交는 足太陰脾經, 足厥陰肝經, 足少陰腎經의 交會穴이므로 肝脾腎 3臟을 포괄한 여러 內科 질환에 두루 응용할 수 있으며 팔맥교회혈도 아니다. 그러므로, 八脈交會穴 위주로만 『藏珍要編』에서 다빈도로 선혈된 것은 아닌 것이다. 外關과 三陰交到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臟腑와 水液代謝를 담당하는 三焦를 조절하고, 전반적인 臟腑의 축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목표로 시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3) 公孫

총 53회, 그중 別法에 6회를 선혈하였다. 전체적인 선혈 비율은 32.5%이다. 公孫은 足太陰脾經의 絡穴이며 八脈交會穴의 하나로서 衝脈과 통하며, 內關과 배합하여 心, 胸, 胃의 질환을 다스린다고 하였다¹¹⁾. 『藏珍要編』에서도 公孫이 內關과 조합되어

7)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경락 경혈학회지. 2010. 27(1). pp.165-166.

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219-220.

9) 松溪. 朝鮮家傳 藏珍要編. 東京. 皇漢醫書寫傳會. 1940. pp.97-102.

10)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59.

11)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219-220.

있는데¹²⁾, 內關이 公孫과 배합된 경우와 아닌 경우가 각각 19회, 8회로서 70.4%의 비율이지만, 公孫으로서는 19회에 불과하여 빈도는 35.8%에 그치고 있다. 또한 心, 胸, 胃의 질환은 물론 傷寒, 飮食傷, 不眠, 眩暈, 膿耳, 外科, 浮腫, 脹滿, 帶下, 小兒丹毒 등 골고루 선혈되어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八脈交會穴의 배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 列缺

총 50회, 그중 別法에 7회를 선혈하였다. 전체적인 선혈 비율은 30.7%. 列缺은 鼻塞鼻痛에 1회, 別法의 肝氣, 痰積 등에서 3회 등 총 4회만 補法으로 선혈하였고 나머지 46회는 瀉法을 적용하였다. 列缺도 手太陰肺經의 絡穴로, 八脈交會穴의 하나이다. 『藏珍要編』에서 다빈도로 선혈한 혈위 가운데 絡穴이 더러 보이는데, 『靈樞·經脈』에서 絡穴은 本經에서 갈라져 나와 表裏관계를 강화한다고 보았으므로¹³⁾, 表裏관계에 있는 經脈을 함께 다스려 臟腑를 치료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

八脈交會穴에서 列缺은 照海와 배합되어 肺, 喉嚨, 胸膈의 병을 치료하는데 照海가 列缺과 조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5회, 23회로서 오히려 17.9%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列缺은 任脈과 통하며 主客 관계로 肺系, 咽喉, 胸膈 등을 치료한다고 하였다¹⁴⁾. 『藏珍要編』에서는 傷寒, 骨蒸, 嘔血, 吐血, 痢疾, 頭風, 鼻塞, 斑疹, 癩疹, 痔漏, 脫肛, 癩癧, 頭脹, 諸毒, 小兒丹毒, 胎毒, 痰積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八脈交會穴의 주치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後谿

총 34회, 그중 別法에 2회를 선혈하였다. 전체적인 선혈 비율은 20.8%로서 外關, 三陰交, 公孫 등에

비해서는 선혈의 특징과 민감도를 보인다. 後谿는 手太陽小腸經에 속하여 五輸穴 중 腧穴에 해당한다. 특히 外關, 三陰交, 公孫이 거의 전부 補法으로 시행되었고(예외적으로 催產, 難産에서 三陰交는 瀉法으로 시행), 列缺은 거의 瀉法으로만 시행되었던 점에 반해서, 後谿는 총 17회가 瀉法으로 적용되어 補瀉의 적용 비율이 반반씩 나타났다. 補法으로 시행된 병증은 傷寒陰毒, 暑中吐瀉, 淋疾, 泄瀉, 痢疾, 乳巖(積聚로 판단), 血積, 濕霍亂, 血塊 등이며, 瀉法으로 적용된 병증은 傷寒 三陰病, 裏證, 傷寒吐衄, 火結胸, 癩癧, 失音, 耳鳴, 産後發熱 등이다.

後谿도 八脈交會穴의 하나로 督脈과 통하며 夫婦의 역할로 申脈과 배합하여 目內眥,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을 치료하는데, 申脈이 後谿와 배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7회, 13회로 35%에 불과하여 비율이 높지 않다. 또한 주치증의 범위도 八脈交會穴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어서 “受盛之官, 化物出焉”¹⁵⁾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 병증들과 폭넓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6) 臨泣

총 28회, 그중 別法에 1회를 선혈하였다. 선혈 비율은 17%로 사용의 특이도가 높다. 臨泣은 足少陽膽經의 腧穴이기도 하면서 八脈交會穴로서 外關과 함께 男女 관계로 배합하여 目銳眦, 耳後, 頰, 頸, 肩, 缺盆, 胸膈 등을 치료한다고 보았는데, 다른 혈위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특별히 外關과 많은 빈도의 조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었다. 또한 총 28회 선혈된 照海와 한 번도 배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0회가 補法으로 사용되었는데, 傷寒陽明, 傷寒太陽, 健忘症, 痰飲, 上齒痛, 下齒痛, 結胸痞氣, 嘔吐, 癩癧, 頭脹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8회가 瀉法으로서 驚悸怔忡, 癩癧, 癩狂, 失音, 急驚風 등에서 선혈되었다. 膽經 流注 부위의 병증 이외에 瀉法으로 癩癧, 驚風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서 八脈交會穴의 배혈법 보다는 “中正之官, 決斷出焉”¹⁶⁾의 의미

12)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원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0. 27(1). p.166.

13)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經脈.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p.138-142. “諸脈之浮而常見者, 皆絡脈也.”, “手太陰之別, 名曰列缺, 起於腕上分間, 並太陰之經, 直入掌中, 散入於魚際. 其病實則手銳掌熱, 虛則欠欬, 小便遺數, 取刺去腕半寸, 別走陽明也.”

1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219-220.

15)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59.

를 가진 膽의 병증을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7) 照海

총 28회, 그중 別法에 3회를 선혈하였다. 선혈 비율은 17%. 照海는 足少陰腎經의 八脈交會穴로서 앞서 제시된 列缺과 主客 관계로 배합하여 肺系, 咽喉, 胸膈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藏珍要編』에서는 오히려 列缺이 선혈되지 않는 질환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藏珍要編』에서는 照海를 모두 補法으로 사용하였고, 傷寒太陰, 傷寒少陰, 陰虛火動, 虛勞症, 遺精夢泄, 血汗, 虛煩, 自汗, 淋疾, 便秘, 耳鳴, 疝症, 陰囊濕痒 등을 대상으로 선혈하여 陰證, 下焦證 또는 腎병증의 치료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 合谷

총 27회, 그중 別法에 3회를 선혈하였다. 선혈 비율은 16.6%이다. 合谷은 八脈交會穴은 아니며 手陽明大腸經의 原穴로 臟腑의 原氣와 통한다고 본다. 총 23회가 선혈된 足厥陰肝經의 原穴인 太衝과 배합된 경우가 21회에 달하여, 四關穴로 함께 배합하여¹⁷⁾ 氣滯를 치료하는 통용혈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中風, 中惡, 尸厥, 催産, 急驚風 등에 응용되었다.

9) 內關

총 27회, 그중 別法에 1회를 선혈하였다. 선혈 비율은 16.6%로 모두 瀉法이 적용되었다. 內關은 手厥陰心包經의 絡穴이면서, 陰維脈과 통하는 八脈交會穴로 公孫과 父母 관계로 心, 胸, 胃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藏珍要編』에서는 公孫의 53회 선혈 중 內關과 배합된 것은 19회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內關이 三陰交와 배합한 경우가 배합 비율이 높았다.

또한 『藏珍要編』에서는 陰極似陽, 鄭聲, 譫語, 發狂, 中暑毒, 胸痺痛, 陰虛火動, 癩癩, 失音, 外障, 脫

肛, 乾霍亂, 消渴 등에 선혈되었는데, 心包가 가진 臟腑의 특성을 생각할 때 心, 胸, 胃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心의 역할을 心包가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足三里

총 24회, 그중 別法에 4회를 선혈하였으며 선혈 비율은 14.7%이다. 足三里는 足陽明胃經의 合穴로서 일반적으로 소화기 기능을 조절하기 위한 배합 이외에 여러 병증에 두루 선혈되었다. 風痺, 麻木, 歷節風, 食傷, 痰滯, 結胸痞氣, 乾濕霍亂 등에 이용하였다.

11) 太衝

총 23회, 그중 別法에 2회를 선혈하였으며 선혈 비율은 14%로서 모두 補法이 적용되었다. 太衝은 足厥陰肝經의 原穴로 臟腑의 原氣가 통하는 곳이다. 合谷과 마찬가지로 肝-大腸의 相通관계를 생각할 수 있으며, 『藏珍要編』에서 총 21회에 걸쳐 合谷과 함께 조합하여 선혈하였다. 氣滯의 경우 통용혈로 쓰였다.

12) 申脈

총 20회 선혈하였으며 別法에는 선혈되지 않았다. 선혈 비율은 12.3%이다. 申脈은 足太陽膀胱經의 혈위로 陽維脈과 통하며 夫妻관계로 後谿와 배합하여 目內眦,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 등을 치료하는 八脈交會穴이다.¹⁸⁾ 瀉法이 6회 적용되었으며, 補法에는 傷寒裏證, 鄭聲, 淋疾, 頭風, 眩暈, 上下痔痛, 疝症, 月經不調 등에 선혈되고, 瀉法에는 痼冷, 便血, 陰囊濕痒, 痔漏, 脫陰 등에 선혈되었다. 申脈이 後谿와 배합된 경우가 35%에 불과하여 陽維脈과의 상관정보다는 “州都之官, 津液藏焉”의 의미를 포함하여 다양한 陰證의 치료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3) 曲池

총 8회, 그중 別法에 1회를 선혈하였다. 선혈 비율은 4.9%로 특이도가 높다. 手陽明大腸經의 合穴

16) 洪元植 譯. 校訂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59.

17)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384.

18)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19.

로 口眼喎斜, 手足癱瘓, 麻木, 歷節風, 肩痛, 小兒癇氣 등에 선혈하였다.

14) 委中

총 8회, 그중 別法에 1회를 선혈하였다. 선혈 비율은 4.9%이다. 委中은 足太陽膀胱經의 合穴로 傷寒裏證과 譫語, 發狂에는 刺絡瀉血하였고, 直項, 腰痛, 僵背, 鳩胸症 등에 선혈되었다. 委中의 경우와 같이 다빈도의 선혈된 혈위로서 絡穴, 腧穴, 原穴, 合穴 등이 있는데, 이는 臟腑와 직접 연결되며 많은 기를 소통할 수 있는 혈위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臟腑를 치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15) 기타 및 총괄

『藏珍要編』에서는 상기 제시한 혈위를 바탕으로 五臟에 대한 치료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經外奇穴로 別穴을 7회, 肩髃와 肩井을 각 5회 선혈하였다. 3회씩 선혈된 혈위는 手三里, 風市, 環跳, 章門, 百會, 中脘 등의 6穴이며, 2회씩 선혈된 혈위는 頰車, 腎俞, 涌泉, 絕骨, 大椎(四傍 附紐 1회 포함), 人中(別法에만 선혈), 膝眼 등 7穴이며, 1회 선혈된 혈위는 少商, 迎香, 乳根, 衝陽, 天樞(別法에만 선혈), 大都, 晴明, 太谿(別法에만 선혈), 間使, 耳門, 角孫, 風池, 瞳子膠, 大敦, 中封, 行間, 承漿, 印堂(大敦 이하 5穴은 別法에만 선혈) 등의 18穴이다.

이상 총 49穴을 經脈별로 살펴보면, 手太陰肺經이 2穴, 手陽明大腸經이 4穴, 足陽明胃經이 6穴, 足太陰脾經이 3穴, 手太陽小腸經이 2穴, 足太陽膀胱經이 4穴, 足少陰腎經이 3穴, 手厥陰心包經이 2穴, 手少陽三焦經이 3穴, 足少陽膽經이 6穴, 足厥陰肝經이 5穴, 督脈이 4穴, 任脈이 2穴, 經外奇穴이 3穴 선혈되었다. 그러나 手少陰心經은 “君主之官”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겨서 따로 선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II. 考 察

현재 日本의 千葉大學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原本의 筆寫刊行本인 『朝鮮家傳 藏珍要編』을 대상으로

로 書誌學적 내용과 사용된 혈위의 현황 및 선혈 방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著者에 대한 考證으로 1988년에 日本에서 翻譯되어 刊行된 『朝鮮의鍼法 藏珍要編』에서는 著者가 松又溪로 되어 있으나 原本의 筆寫刊行本에서는 松溪로 되어 있다. 이는 原本의 筆寫本이 日本語로 翻譯되고 流轉되는 과정에서 바뀌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韓國에는 和順松氏가 유일한 姓氏인데 1950年代에 와서야 정식으로 등록이 되므로 舊韓末의 ‘松溪’가 실제 人名이라고 보기 힘들다. 반면에 ‘松溪’라는 號를 가진 歷史의 人物들이 있고, “江陽”의 현재 지명인 陝川 주변에 ‘松溪’라는 地名이 있어서 著者의 號 또는 출신지의 地方名을 號 대신 사용하여 기재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松溪’라는 人物 중에서 醫學에 전념한 사람이 없고 地方名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史料가 발견되지 않아 명확하게 考證할 수 없다.

『藏珍要編』에서 사용된 혈위의 현황을 살펴보면, 原本의 筆寫刊行本을 기준으로 各論의 145개 病症條文 중에 40개의 穴, 책 뒷부분의 別法의 18개 病症條文에 9개의 穴이 사용되어 총 49개의 穴이 활용되고 있다. 經絡별로는 手少陰心經을 除外한 모든 正經과 督脈, 任脈이 포함되어 있는데, 心經의 경우는 『黃帝內經』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君主之官으로서 ‘心獨無臉¹⁹⁾’의 관점으로 선혈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혈위의 頻度數를 살펴보면, 外關 107회, 三陰交 90회, 列缺 50회, 公孫 53회, 後谿 34회, 照海 28회, 臨泣 28회, 合谷 27회, 足三里 24회, 太衝 23회, 申脈 20회로서 이상 11개 혈위가 多用되었고, 기타 曲池, 委中이 8회, 別穴이 7회, 肩髃, 肩井이 5회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3회 이하로 선혈되었다.

各論 및 別法에서 사용된 혈위의 선혈 방식을 살

19)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經脈.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4. p.454. “黃帝曰, 手少陰之脈, 獨無臉, 何也. 岐伯曰, 少陰, 心脈也. 心者, 五藏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君主之脈也, 故獨無臉焉.”

퍼보면, 우선 『藏珍要編』에서 주요 經穴의 주치증을 실어놓으면서 八脈交會穴을 父母, 夫妻, 男女, 主客으로 짝을 지어 배합하여 설명하고 있어서 八脈交會穴의 배혈법이 『藏珍要編』의 주요 선혈 방식이라 인식할 수 있다. 八脈交會穴은 奇經八脈과 對應하는 8개의 혈위를 말하는데 각각 2개씩 짝을 지어 함께 刺鍼함으로써 특정한 병증들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公孫穴(父-衝脈)과 內關穴(母-陰維脈)을 배합하여 心, 胸, 胃部를 치료하고, 臨泣穴(男-帶脈)에 外關穴(女-陽維脈)을 배합하여 目銳眦, 耳後, 頰, 頸, 肩, 缺盆, 胸膈을 치료하고, 後溪穴(夫-督脈)에 申脈穴(妻-陽維脈)을 배합하여 目內眦,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을 치료하고, 列缺穴(主-任脈)에 照海穴(客-陰蹻脈)을 배합하여 肺, 喉嚨, 胸膈을 치료하는 등이다.

『藏珍要編』에서 나타난 八脈交會穴 사이의 배혈 관계를 살펴보면, 外關의 경우 이에 對應하는 臨泣과의 배혈 비율은 낮고 오히려 三陰交와의 배혈 관계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치증을 살펴보면 外關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臨泣은 癲癩, 癲狂, 急驚風 등 특수한 급성 질환에 사용되고 있어서 八脈交會穴의 주치증과는 거리가 있다. 公孫의 경우에는 다른 八脈交會穴의 조합과 달리 內關과 비교적 밀접하게 배혈되어 있으나, 公孫이 사용된 전체의 35.8%의 경우에만 배혈되고 있으며, 內關도 公孫보다는 오히려 三陰交와 많이 배혈되고 있다. 주치증에 있어서도 心, 胸, 胃의 질환은 물론 傷寒, 飲食床, 不眠, 眩暈, 膿耳, 外科, 浮腫, 脹滿, 帶下, 小兒丹毒 등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列缺의 경우 照海와의 배혈 비율이 낮고, 주치증에 있어서도 列缺은 肺, 咽喉, 胸膈 등 上焦의 질환뿐만 아니라 傷寒, 骨蒸, 嘔血, 吐血, 痢疾, 頭風, 鼻塞, 斑疹, 癰疹, 痔漏, 脫肛, 瘰癧, 頭脹, 諸毒, 小兒丹毒, 胎毒, 痰積 등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照海는 오히려 陰證, 下焦證 또는 腎병증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後溪의 경우에는 申脈과의 배혈 비율이 낮고, 주치증은 八脈交會穴 배혈법의 目內眦, 頸項, 耳, 肩膊, 小腸, 膀胱과 유사하나 보다 넓은 병증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藏珍要編』은 비록 八脈交會穴을 사용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실제 各論의 선혈에 있어서는 八脈交會穴의 배혈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타 다빈도 혈위들과 다양하게 배혈하여 사용하였다. 주치증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해당 經穴이 배속되어 있는 經絡이 속한 臟腑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병증들을 폭넓게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 韓國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선혈의 임상 경험들이 『藏珍要編』 속에 녹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臟腑에 관한 집증은 저자가 총론부분에서 臟腑總論을 통해 臟腑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통해 집필 의도를 살필 수 있다. 이는 기존연구²⁰⁾에서도 저자의 의학관을 통해 제시한 부분이다.

그밖에 三陰交가 광범위한 증상에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었고, 足三里, 曲池, 委中 등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혈위들과 合谷, 太衝의 四關穴 배합도 많이 활용되었다. 補瀉法の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의 혈위들이 補法 또는 瀉法으로 치우쳐져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後谿는 補法과 瀉法이 절반씩 적용되어, 後谿穴의 경우 진단과 치법에 따라 補瀉를 중요하게 선택하여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多頻度로 사용된 혈위들이 대부분 絡穴, 原穴, 合穴 등으로서 해당 經絡과 表裏관계 經絡 사이의 氣를 조절하거나 또는 氣가 가장 풍부하게 모이는 혈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藏珍要編』은 臟腑 중심의 經穴 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針灸經驗方』 등 이전의 韓國 鍼灸學의 전통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하여 『藏珍要編』의 선혈 방식과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으며,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향후 『鍼灸經驗方』과 『東醫寶鑑』 및 기타 韓國 鍼灸書들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韓國 鍼灸學의 전통적 특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IV. 結 論

『藏珍要編』 원본의 筆寫刊行본인 『朝鮮家傳 藏珍要編』을 대상으로 서지학적 내용과 사용된 혈위의

20)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0. 27(1). pp.159-168.

현황 및 선혈방식의 특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原本의 筆寫刊行本에서는 松溪로 되어 있는데, 저자의 號 또는 출신지의 지방명을 號 대신 사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藏珍要編』에서 사용된 혈위는, 各論의 145조문 중 40개, 別法의 18조문 중 9개로, 총 49혈이 활용되었으며, 모든 경맥과 任督脈이 포괄되지만, 心經의 경우는 '心獨無腧'의 관점으로 선혈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藏珍要編』은 비록 八脈交會穴을 주요 경혈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선혈은 해당 경혈이 配屬되어 있는 經絡이 속한 臟腑와 관련된 병증들을 폭넓게 치료하고 있다.

4. 『藏珍要編』에서 활용된 경혈 중에서 外關(107회)과 三陰交(91회)가 매우 활용빈도가 높았다. 이는 外關과 三陰交를 광범위한 증상에 三焦와 肝脾腎의 조화로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의미로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公孫(53회), 列缺(50회)을 다빈도로 선혈하여 脾肺의 기능을 조절함을 목표로 삼았다.

5. 補瀉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의 혈위들이 補法 또는 瀉法으로 치우쳐져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後谿는 補法과 瀉法이 절반씩 적용되어, 補瀉를 중요하게 선택하였다.

6. 多頻度로 사용된 혈위들은 대부분 表裏관계를 강화하고, 臟腑의 原氣와 연결되는 絡穴, 原穴, 合穴 등으로서, 臟腑를 목적으로 치료의 혈위를 제시하여, 臟腑의 진단과 치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朝鮮 鍼灸學의 전통을 갖고 있다.

參考文獻

<단행본>

1. 松溪. 朝鮮家典 藏珍要編 謄寫本. 東京. 皇漢醫書寫傳會. 1940.
2. 松又溪 原著, 柳谷素靈 推獎, 池田政一 解説. 朝鮮の鍼法-藏珍要編. 東京. 醫道の日本社. 1988.
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219, 384. pp.219-220.

4.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4. p.454. pp.138-142.
5. 洪元植 譯.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59.

<논문>

1.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0. 27(1). pp.159-168.
2. 吳準浩. 五臟辨證을 활용한 朝鮮 鍼法 硏究. 서울. 慶熙大學校大學院. 2010. p.91.

<기타매체>

1. 안상우. 고의서산책 157. 藏珍要編. 서울. 민족의학신문. 416호. 2003.
2. 和順松氏 : http://www.rootsinfo.co.kr/info/roots/view_roots.php?H=%E1%E6&B=%C8%AD%BC%F8&HB=&P=
3. 松溪 : <http://people.aks.ac.kr/front/search/totalSearch.aks?kristalCategory=1&kristalSearchType=1&kristalSearchWord=%E6%9D%BE%E6%BA%AA&kristalSearchArea=M&isEQ=true&isEQ=true&kristalSearchArea=M>

<별첨>

1. 『藏珍要編』의 病症과 選穴表

